

# 국 어

문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바른 것은?

- ① 꽃잎이 한잎V두잎 강물에 떠내려가V버렸다.
- ② 이곳에서 주문할 물품의 개수는 스물내지V서른 정도입니다.
- ③ 부장V겸V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신 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 ④ 김V동식V박사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신V만큼 큰 상을 받게 되셨다.

**[정답] ①**  
**[해설]** 원칙은 ‘한 잎 두 잎’이지만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 46항)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지만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반드시 띄어 쓴다.(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47항) ‘떠내려가다’는 ‘뜨다’와 ‘내려가다’가 결합한 합성동사이다. 따라서 ‘떠내려가다’(본용언, 합성동사)와 ‘버렸다’(보조용언)는 반드시 띄어 쓴다.  
**[오답풀이]**  
 ② ‘이곳’은 ‘이’라는 지시대명사와 ‘곳’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이곳’은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띄어 쓰지 않는다. 선택지의 띄어쓰기는 옳은 표기이다. 하지만 ‘내지’는 부사로서 하나의 단어이다. 단어와 단어는 반드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스물 내지 서른’이 옳은 표기가 된다.  
 ③ ‘겸’은 의존명사로 하나의 단어이다.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앞뒤의 말과 반드시 띄어 쓴다. ‘부장 겸 대외협력실장’이라고 표기한 선택지의 띄어쓰기는 옳은 표기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48 항에서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부장님’은 틀린 표기이며 ‘김 부장님’이라고 해야 옳은 표기가 된다.  
 ④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김동식 박사’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기이다. ‘만큼’은 조사와 의존명사 두 가지 경우로 쓰인다. ‘만큼’이 조사일 때는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위치하여 이들과 붙여 쓴다. (예. ‘너만큼 예쁘더구나.’, ‘집이 대궐만큼 크다.’) ‘만큼’이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ㄴ/은, -는, -던’ 등의 어미 뒤에 쓰여 이러한 단어와 띄어 쓴다. 선택지의 ‘노력하신’은 ‘노력하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붙은 형태이므로 이러한 앞말과는 띄어 쓰는 것이 옳은 표기이다. 따라서 선택지의 표기는 옳다.

문 2. 밑줄 친 관용 표현 중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낙숫물이 댛들을 뚫는다는데, 계속 노력하면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아이고, 너같이 느려서야 뭘 하겠니? 갓 쓰고 나가자 파장 하겠다.
- ③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는데, 무슨 일이든 마음 놓지 말고 확실하게 하렴.
- ④ 설 선 무 같이 야무지고 똑똑하기가 아주 비할 데가 없어.

**[정답] ④**  
**[해설]** ‘설 선 무’는 가을에 뽑아 둔 무가 해를 넘기면 속이 비고 맛이 없다는 뜻으로 한창때가 지나 볼 것이 없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야무지고 똑똑하다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낙숫물이 댛들을 뚫는다 :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갓 쓰고 나가자 파장(=망건 쓰자 파장) : 준비를 하다가 그만 때를 놓쳐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 : 무슨 일이든 앞뒤를 신중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행동하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문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겨울철에는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제격이다.
- ② 너는 웬 군소리가 그렇게도 많니?
- ③ 맛있는 음식 때문에 군침이 돈다.
- ④ 군불에 밥 짓기

**[정답] ①**  
**[해설]** 접두어 ‘군’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쓸데없는’이란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①번의 ‘군’은 ‘굽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붙은 꼴인 ‘구은’의 축약형이다. 여기에 ‘고구마’가 결합하여 ‘군고구마’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①번의 ‘군’은 ‘굽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답풀이]**  
 ②, ③, ④의 ‘군’은 ‘쓸데없는’이란 뜻을 가진 접두어이다.  
 ② 군소리 : 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쓸데없는’ 말  
 ③ 군침 : ‘공연히’ 입 안에 도는 침  
 ④ 군불 : ‘필요 없이’ 때는 불

문 4.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비켜서야 한다.

- ①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품사는 같다.
- ② 이 문장은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 ③ ‘한발’은 ‘한V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④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헌 물건’의 ‘헌’을 들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단어란,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조사’가 포함된다.(단, 어미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의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품사로써 파악하면 문장의 단어 개수를 쉽게 알 수 있다. 위의 문장을 분석해보자.

너	는	학생	이	므로	그	위험하	ㄴ
명사	조사	명사	서술격 조사	어미	관형사	형용사	어미

일	에서	한발	비켜서	어야	하	ㄴ	다
체언	조사	부사	동사	어미	동사	어미	어미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단어’이며 각각의 품사는 위와 같다. 즉 문장의 단어 개수는 총 11개이다. 단어를 품사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 단어 - 불변어 - 체 언 : 명사, 대명사, 수사
  - 수식언 : 관형사, 부사
  - 독립언 : 감탄사
  - 관계언 : 조사
- 가변어 - 용 언 : 동사, 형용사
  - 서술격 조사 : 이다

**[오답풀이]**

- ① ‘너’의 문장성분은 ‘주어’이며, ‘그’의 문장성분은 ‘부사어’이다. 문장성분은 문장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구실을 하는 요소를 말하며, 주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과 부속 성분(관형어, 부사어) 그리고 독립 성분(독립어)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성분이 다르다는 설명은 옳지만, ‘너’의 품사는 명사이며 ‘그’의 품사는 관형사이므로 두 단어의 품사는 다르다.
- ③ ‘한발’은 하나의 단어로서 품사는 부사이다. 띄어 쓰지 않는다.
- ④ ‘위험한’의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헌’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문 5.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 그녀는 ㉠아름다운 꽃을 품에 ㉡가득 안고 왔다.
- 하루 종일 ㉢비가 왔다. ㉣다행히도 마음만은 즐거웠다.

- ① ㉠ : 관형어
- ② ㉡ : 부사어
- ③ ㉢ : 주어
- ④ ㉣ : 독립어

**[정답] ④**

**[해설]** ‘다행히’라는 부사에 ‘-도’라는 보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다행히도’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 ① ‘아름답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 ② ‘가득’은 ‘안고’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③ ‘비’에 주격 조사 ‘가’가 붙은 형태로 주어의 역할을 한다.

문 6. 예문의 밑줄 친 부분과 그 수사(修辭)적 유형이 같은 것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김동명, ‘내 마음은’ 중에서-

- ①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屈辱)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 ② 님의 사랑은 뜨거워  
근심 산(山)을 태우고 한(恨) 바다를 말리는데
- ③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④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정답] ②**

**[해설]** 예문의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수사적 표현은 ‘은유’이다. 은유란, A=B(A:원관념, B:보조관념)처럼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관념을 어떤 유사한 요소에 근거하여 결합시키는 비유의 방법을 말한다. 선택지 ②는 한용운의 ‘님의 손길’이란 시인데, 밑줄 친 부분에서 근심을 산이라 표현했고 한을 바다라 표현한 것은 ‘은유’를 사용한 것이다. [근심 산(원관념:근심, 보조관념:산), 한 바다(원관념:한, 보조관념:바다)]

**[오답풀이]**

- ① 강아지 같은 것들아 : ‘직유’를 사용했다. 직유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 ③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 ‘역설’이 사용되었다. 목숨이 빼앗겼다면 죽음을 맞아야 하는데 죽음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모순이다.
- ④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영탄’이 쓰였다. 영탄이란, 강조법의 일종으로서 주로 ‘오, 아아, 아이구’ 등의 감탄사를 사용하여 평상시보다 강하고, 길고, 짙은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문체적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문 7.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그뿐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이, 즉 지기자(知己者)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버릴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은혜는 은혜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자신이 받은 만큼 되갚기 위해 전력하여야 한다.  
 (나) 무공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협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협이란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에 입각하여 살신성명(殺身成名)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 또는 그러한 실천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야 하며,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신의(信義)를 목숨보다도 중히 여길 것도 강조되는데, 여기서의 신의란 상대방을 향한 것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라) 무와 더불어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협’의 개념이다. 무협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협이란 무덕(武德), 즉 무인으로서의 덕망이나 인격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곧 무공 사용의 전제가 되는 기준 내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라) - (가) - (다) - (나)
- ② (라) - (다) - (가) - (나)
- ③ (나) - (다) - (라) - (가)
- ④ (나) - (다) - (가) - (라)

**[정답] ②**  
**[해설]** 선택지를 보면 첫 문장이 (라) 또는 (나)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를 읽어보면 ‘~한 이유는, ~때문이다’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글의 첫 문장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라)가 글의 첫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라)에서는 ‘협’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다)에서는 이러한 ‘협’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가)에서는 앞서 말한 원칙에 추가하여 ‘협’으로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에서는 아무리 무공이 높다하여도 협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앞서 말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협’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문 8. 다음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 길’-

- ①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부정적인 상황에 한탄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리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나 활달한 태도가 드러난다.

**[정답] ②**  
**[해설]** 7행~9행까지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뒤이은 행부터는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다른 사람이 걸어갈 길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어조 또한 단정적이고 명령적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희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정호승 ‘봄길’  
 \* 주제 :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개척하는 삶의 태도  
 \* 제재 : 봄길(사랑)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 어조: 단정적 어조  
 \* 화자의 태도: 의지적 자세  
 \* 표현상 특징: 반복을 통해 절망 극복의 의지를 강하게 제시

문 9. 번역 투의 표현이 아닌 문장으로만 짝지은 것은?

- ① · 나는 부모님에 의해 예의 바르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다.  
· 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자고 나가는 곳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
- ② · 이번 방학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학내 폭력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는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로 한다.
- ③ · 내 고향에는 아직도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다.  
· 이런 짓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④ ·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오늘 조회 시간에는 학교 문제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

**[정답] ③**  
**[해설]** 영어 등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겨 적을 때 우리의 언어습관과 현저히 다른 문투가 많이 발견되는데 ‘영어투’, ‘일본어투’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문장은 수동태 문장을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한 문장이다. ‘~에 의해’라는 표현은 영어의 ‘by’를 직역한 것이다.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보면 ‘부모님은 나를 예의바르고 친절한 아이로 기르셨다’가 된다. 두 번째 문장은 ‘~에 있어서’가 일본식 후치사의 영향을 받았다. 올바른 문장으로 바꾼다면 ‘그는 가정을 자고 나가는 곳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도가 되겠다.  
 ② 첫 번째 문장은 ‘가지고 있다’가 영어 ‘have’를 직역한 것이다. ‘이번 방학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다.’가 옳은 문장이다. 두 번째 문장은 ‘필요로 한다’가 일어의 번역투에 해당한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하다. ‘학내 폭력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는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가 옳은 문장이 되겠다.  
 ④ 첫 번째 문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영어 ‘cannot too’의 번역투이다. 옳게 고치면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가 된다. 두 번째 문장은 ‘~에 대한(~에 관한)’이 영어 ‘about’의 번역투이다. 굳이 ‘~에 대한’을 쓰지 않아도 올바른 문장이다. ‘오늘 조회 시간에는 학교문제에 교장선생님의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는 옳은 문장이다.

문 10.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된 것은?

- ① 웃니, 찻집, 두렛일
- ② 굵직하다, 넓직하다, 높다랄다
- ③ 그럴잖다, 만만찮다, 적잖다
- ④ 양심(良心), 유행(流行), 성공율(成功率)

**[정답] ③**  
**[해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39항은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않)다→그렇잖다’가 되며, ‘만만치 않다’는 ‘만만(치+않)다→만만찮다’가 된다. ‘적지 않다’도 위의 규정에 따라 ‘적(지+않)다→적잖다’가 된다.  
**[오답풀이]**  
 ① 웃니(X) : 위, 아래 구분이 가능하므로 ‘윗니’로 표기한다. 찻집과 두렛일은 모두 옳은 표기이다.  
 ② 넓직하다(X) : ‘널찍하다’가 옳은 표기이다. 굵직하다, 높다랄다는 모두 옳은 표기이다.  
 ④ 성공율(X) : ‘렬, 룰’이 ‘열, 율’로 바뀌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앞의 음이 ‘모음’으로 끝날 때이며, 또 다른 경우는 ‘ㄴ’받침이 올 때이다. 흔히들 ‘울림소리’ 다음에 ‘렬, 룰’이 ‘열, 율’로 바뀐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혼동하지 말자. ‘성공률’이 맞다. 양심과 유행은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두 옳은 표기이다.

문 11. 다음 작품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웅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오.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① 농촌에서 노동하는 삶
- ② 벼슬을 하는 지식인의 삶
- ③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삶
- ④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삶

**[정답] ③**  
**[해설]** 농민들이 보리타작이라는 공동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통해, 노동이야말로 참으로 즐거운 삶이요 건강한 삶을 말해 준다. 육체와 정신이 통일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표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와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오?’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어 벼슬길에 해매며 시달렸던 작자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도 한다.

문 12. 다음 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말다운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글 속의 문장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서로 호응하는 성분 간의 관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 ① 철수는 지금 당장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 ② 문화 결손은 교육학에서, 어린이가 자라면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 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 ③ 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건드린 이 마을 사람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 ④ 보안과 관계된 사항에는 각종 비문뿐만 아니라 부대 위치 및 지휘관의 신상, 활동 등도 포함된다.

**[정답] ④**

**[해설]** 비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비문을 범하기 쉬운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1) 부당하게 주어를 빠뜨린 경우, 2) 주어와 서술어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 높임법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4) 시제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5) 조사를 잘못 선택하거나 부당하게 생략한 경우 6) 피동문의 과용, 7) 번역 투의 사용 8) 중의적 표현 등이 있겠다.

**[오답풀이]**

- ① 시제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철수는 유학을 가려고 계획만 했을 뿐 실제로 유학을 가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뒷 문장에서는 철수가 이미 유학을 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② 조사를 잘못 선택한 비문이다. ‘접하다’라는 동사는 ‘~을 접하다’로 쓰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위의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다. ‘문화적인 환경에’를 ‘문화저간 환경’로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문화적인 환경’ 뒤에는 부사격 조사 ‘에’ 대신 목적격 조사 ‘을’을 써야 한다.
- ③ 부당하게 주어를 빠뜨린 경우이다. 2년 전 산사태로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이 올해 교통사고를 당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주체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건드린 이 마을 사람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는 또 다른 마을 사람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로 고쳐야 한다.

문 13. 다음 예문에서 이완의 처지를 반영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변 씨는 이완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 씨는 이완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완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완은 몸 돌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 ① 門前薄待, 坐不安席                      ② 狐假虎威, 威風堂堂
- ③ 優柔不斷, 騎虎之勢                      ④ 虎視眈眈, 威風堂堂

**[정답] ①**

**[해설]** 문전박대(門前薄待)는 ‘변 씨는 이완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좌불안석(坐不安席)은 ‘이완은 몸 돌 곳을 몰라 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 호가호위(狐假虎威) :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림  
· 위풍당당(威風堂堂) : 풍채가 위엄이 있어 당당함
- ③ · 우유부단(優柔不斷) : 머물거리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못 함  
· 기호지세(騎虎之勢)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를 이르는 말
- ④ · 호시탐탐(虎視眈眈) : 범이 먹이를 노린다는 뜻으로, 기회를 노리며 형세를 살피를 비유하는 말  
· 위풍당당(威風堂堂) : 풍채가 위엄이 있어 당당함

문 14. 다음 고사성어와 그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姑息之計 : 멀리 보고 심사숙고한 계책
- ② 不刊之書 : 영구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만한 좋은 책
- ③ 十日之菊 : 국화가 최고로 개화한 상황으로 어떤 일의 절정
- ④ 浮雲之志 :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마음

**[정답] ②**

**[해설]** 불간지서(不刊之書) : 길이길이 전할 불후의 양서

**[오답풀이]**

-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계책
- ③ 십일지국(十日之菊) : 국화는 9월 9일이 절정기이니 십일날의 국화라는 뜻으로, 무엇이나 한창 때가 지나 때늦은 것을 비유함
- ④ 부운지지(浮雲之志) :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불의의 부귀를 바라는 마음

문 15. 다음 예문들을 문맥이 통하도록 배열한 것은?

ㄱ. 하지만 덴마크의 왕 프레데릭 3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그것을 세 번 반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ㄴ.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매체의 효과가 '공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ㄷ. 발겐슈텐이 코펜하겐에서 '마술 환등'을 시연했을 때의 일이다.  
 ㄹ. 신하들 앞에서 군왕으로서 용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ㅁ.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해골이 등장하는 모습에 모두 겁을 잡아 먹었다.

- ① ㄷ - ㄴ - ㄱ - ㄹ - ㅁ
- ② ㄷ - ㄹ - ㄴ - ㄱ - ㅁ
- ③ ㄴ - ㄷ - ㄹ - ㄱ - ㅁ
- ④ ㄴ - ㄷ - ㄱ - ㄹ - ㅁ

**[정답] ①**  
**[해설]** 선택지를 보면 첫 문장이 'ㄷ' 또는 '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때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ㄷ'이 가장 먼저 온다. 이후 'ㅁ'이 오는지 'ㄹ'이 오는지를 알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ㄹ'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유를 들고 있는 문장으로서, 이 앞에는 이러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ㄷ'은 그러한 사건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ㄷ' 뒤에는 'ㄹ'이 아닌, 'ㅁ'이 위치해야 한다. 'ㅁ'에서는 해골의 등장에 모두가 겁을 먹었다고 했는데 왕만이 애써 태연한 척했다고 말하는 'ㄱ'이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왕이 태연스러워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ㄹ'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이러한 일화를 통해 어떠한 사실을 깨닫는 내용인 'ㄴ'이 마지막으로 위치하며 문장이 끝을 맺는다.

문 16. 다음 중 차별적 언어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그것은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일인 것 같군요.
- ② 이 소설은 작가의 처녀작으로, 당시 문단의 호응이 매우 컸던 작품입니다.
- ③ 살구 색 옷은 잘못 입으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서 입어야 합니다.
- ④ 복지 정책이 날로 더 발전하고 있으니, 미망인의 문제도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정답] ③**  
**[해설]**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 모두가 각각의 삶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색을 가지고 '살 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차별적 언어표현에 해당하겠지만 '살구 색'을 가지고 인종차별적 언어표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학부형'이란 말은 과거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쓰이던 말로, 학생의 아버지와 형을 일컫었던 말이다. 이를 올바르게 고치려면 '학부모'(學父母 : 배울 학, 아버지 부, 어머니 모)라고 해야 한다.  
 ② 처녀성을 '첫 경험'과 연결짓는 데에서 비롯된 말로서, 성적 비하 표현 내지는 성 차별적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이다. '첫 작품' 정도로 순화하는 게 옳다.  
 ④ '미망인'은 먼저 떠난 남편을 따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 또한 과거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탄생한 말이다. 마땅한 대체단어가 없는 실정이다.

문 17. 다음 예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양이는 영리한 편이지만 지능적으로 기억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썩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와 더불어 고양이가 오랫동안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 ) 때문이다. 주인이 슬퍼하면 고양이는 위로하듯이 응석을 부리고, 싸움이 나면 겁에 질려 걱정하고, 주인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한다.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음성의 고저 등으로 이해한다. 말은 못하지만 고양이만큼 주인 마음에 민감한 동물도 없다. 어차피 동물이라 모를 거라고 무시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 ① 말귀를 잘 알아듣기
- ② 행동의 실천을 바로 하기
- ③ 감정의 이해가 아주 빠르기
- ④ 주인에게 충성하기

**[정답] ③**  
**[해설]** '~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난 후 뒷 문장에서 그러한 까닭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으므로 뒷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앞 문장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뒷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이 슬퍼할 때 고양이는 그러한 주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는 위로하듯 응석을 부린다고 했고, 또한 싸움이 나면 겁에 질려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양이가 주인의 감정을 아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다.

